

창의적 활동을 활용한 단계별 시조창 지도방안*

이 정 민**

본고는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느린 음악이 가진 정서적 특징을 체험하고, 시조창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시조창에 관한 연구와 음원 분석을 통해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조창은 복식호흡, 장단의 구조, 말붙임새, 한배의 변화, 시조 창작 등이 교육과정에서 따른 영역별 음악 활동요소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활동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학습 단계를 3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는 각각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전체 9차시 수업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를 재구성하여 3차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조창 지도방안 3단계 중 악곡 이해의 단계는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산수화와 독서성, 선율 탐색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을 사용하여 악곡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하고 가창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영역별 활동의 단계는 장단 구조의 원리를 이용하여 말장단 만들기, 빠르기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시조창 가창을 위한 목표를 구체화한다. 내면화의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창작활동을 통해 시조창의 음악철학과 악곡의 원리를 이해하며, 발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보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로운 시조창 활동 속에서 의미 있는 음악의 요소를 찾아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고, 시조창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풍류음악, 시조창, 국악교육, 창작활동, 단계별 지도방안

차 례

- I. 서론
- II.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
- III. 시조창의 단계별 지도방안 연구
 - 1. 악곡이해 단계
 - 2. 영역별 활동 단계
 - 3. 내면화 단계
- IV. 결론

* 본 논문은 연구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풍류음악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 수양 음악이다. 선비들은 자연을 노래하거나 생각과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감동을 주고받고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또한 음악이 자신의 정서를 화평하게 하고 덕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교화하고 교육하는 데에도 유효하다고 믿었다. 음악에 담은 정서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김혜정, 2013, p. 16). 이러한 풍류 음악의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방향과 맞닿아있다.

2015 개정 음악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 '생활화' 성취 기준에서는 “음악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활용하고 즐기는 태도를 갖게 하며, 우리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교육과 학기기술부, 2015, p. 4)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시조창 교육은 위와 같은 음악교육의 목적 가운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정서와 표현력,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정신수양 음악에 하나인 풍류음악인 시조창교육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있어 훌륭한 정서적 국악교육 교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조창의 느리고 긴 발성법은 폐활량과 집중력을 길러준다. 호흡이 긴 음악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호흡도 차분하고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를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김혜정, 2013, p. 17). 또한 시조창은 자신이 직접 만든 시를 규칙적인 사설에 붙임으로 노랫말 창작활동이 가능한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노래에 담아 부르며 표현하는 활동은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평시조는 6차 음악과 교육과정부터 교육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조에 대한 반응과 현장 교사들의 지도상 어려움 등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다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의 형태로 재도입되었고,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영역에서 학년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음악 교과서에는 장단과 가창활동 등의 활동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음악과 교육과정에 구체적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초등학교 6학년 8개 검정 음악 교과서에 평시조 '동창이'와 '태산이'가 수록되어 있으나 가창보다는 여전히 감상 관점에서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시조창을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조창의 음악적 특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 활동을 활용하여 장단 및 시김새,

호흡, 선율 등의 지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시조창 관한 연구와 시조창 음원 분석을 통해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교육적 요소와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사용하여 단계별 지도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시조창 지도 악보는 경제악보의 장단을 기준으로 향제 시조보에서 사용하는 선율선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시조창을 부를 때의 호흡 및 시김새는 국가 무형문화재 김월하와 이양교의 호흡 길이를 분석한 다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지도하겠다.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평시조 중에서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주제인 '태산이'를 선정하고, 동아리에서 9차시, 교과중심 시조창 단원에서 4차시 수업으로 하여 지도할 것이다.

II.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

시조창은 초장중장종장의 3형식으로 된 시조를 느린 가락에 얹어 부르는 노래로 조선후기의 주요한 성악장르이다. 이 장에서는 현행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평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요소와 원리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1. 시조의 형식과 장단

시조창은 5음 음계이나 5음 모두가 고루 사용되지 않고, 황종(E♭) · 중려(A♭) · 임종(B♭)의 3음이 선율의 골격을 이룬다(김영운, 2015, p. 212). 현재 음악 교과서에는 시조창 중에서 평시조가 수록되어 있고, 평시조는 '황(黃)', '중(仲)', '임(林)'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개의 음만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또한 시조창은 같은 한 개의 가락에 여러 개의 노랫말을 얹어 부를 수 있으므로 평시조 한 곡만 알고 부르면, 여러 가지 다른 평시조 곡을 부를 수 있고 창작된 평시조의 곡도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조의 장단은 5박과 8박이 혼합된 장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평시조는 경제와 향제의 구별이 있는데 경제 평시조의 초장은 5 · 8 · 8 · 5 · 8박의 순서로, 향제는 5 · 8 · 8 · 8 · 8박 순서로 되어 있다. 시조는 타악기인 장구를 비롯하여, 관악기에 속하는 대금, 피리, 단소, 해금 등의 악기로 반주한다.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는 반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구로만 반주해도 무방하다. 또 일부 향제의 경우나 시조를 처음 배울 때는

무릎장단으로 배우기도 한다.

5박과 8박의 두 가지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조장단 중에 5박 장단은 3박과 2박의 조합 박자이고, 8박 장단은 3박, 2박, 3박의 조합 박자이다. 그러므로 사설은 5박 장단은 1박과 4박에, 8박 장단은 1박 4박 6박에 노랫말이 붙는다. 평시조 초장의 사설은 대체로 합 장단과 복편에 붙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단과 박자에 따라 사설붙임의 형태는 다음의[악보 1]과 같다.

	┌	3	┐	┌	2	┐
5박 장단	①	㉞		○		
박자	1	2	3	4	5	
사설	태산			이		

	┌	3	┐	┌	2	┐	┌	3	┐
8박 장단	①	㉞		○	㉞	○		○	
박자	1	2	3	4	5	6	7	8	
사설	높다			히		되			

[악보 1] 시조창(태산이)의 사설 붙임 모양

시조창의 장단이 5박과 8박, 8박, 5박의 진행 형태를 이루는 것은 길고(장) 짧(단)은 시간의 대비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고 있는 구성이라 하겠다(서한범, 2010, p. 359). 시조창의 장단은 초장의 첫 각은 5박, 둘째 각은 8박, 셋째 각도 8박, 넷째 각은 5박 마지막 다섯째 각은 8박으로 되어있다.

2. 시조창 부를 때 호흡의 길이

시조창은 느린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는 풍류음악이다. 시조창 한 개의 박은 2.5초가 걸려서 8장단으로 이루어진 한 장단의 소요시간이 약 20초나 걸리는 느린 음악에 속하므로,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호흡을 잘 다스려가며 불러야 한다(문현, 2004, p. 14). 이처럼 시조창 장단에 노랫말을 엮어 부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식호흡으로 노래 부르며, 그로인해 심성 수양과 마음의 순화를 얻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조창을 부를 때 최대 길게 소리 내는 호흡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 무형문

화재 김월하와 이양교의 호흡 길이를 조사해 보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월하 (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예능보유자)의 평시조_청산리

김월하는 초장을 부를 때 일곱 번의 숨으로 노래 부르게 되고 가장 긴 것이 18초 짧은 것이 4초였다. 대부분의 5박을 평균 13초 정도로, 앞의 5박을 한 호흡으로 부르고 8박은 나누어 불렀는데 평균 한 박은 3초 정도에 1분 20정간으로 부른다.

2) 이양교 (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예능보유자)의 평시조_태산이

이양교는 초장을 부를 때 여섯 번의 숨으로 노래 부르게 되고 가장 긴 것이 14초 짧은 것이 4초였다. 대부분의 5박을 평균 11초 정도로 부르고 8박은 6박이나 7박으로 끊어 호흡하였다. 평균 한 박은 2초 정도에 1분 30정간 부른다.

〈표 1〉 평균 호흡 시간 비교

	최장 호흡 길이	최단 호흡 길이	5박 평균길이	한 박당 평균시간
김월하	18초	4초	15초	3초
이양교	14초	4초	11초	2초

두 가창자의 평균 호흡 시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위 〈표 1〉와 같이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18초까지 소리내기 위한 호흡이 필요하다. 최장 호흡의 평균 시간은 16초이고 5박의 평균 길이는 13초이다. 평균 13~15초 정도의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시조창을 부르기 위해서는 복식호흡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시조창 가창을 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호흡의 길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시조의 기보법

시조의 기보법은 오선보, 정간보, 선율선보의 기보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간보(이양교, 황규남, 1998)의 경우에는 세로 악보이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하단

으로 방식으로 읽어내려 간다. 상단에 가사를 두고 정간보 안에는 음역을 넣고 정간보 옆에 빈칸에는 가사를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통의 악보와 다른 점은 특별한 시김새들이 많이 추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차별성을 보인다. 시김새가 많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악보가 복잡해 보이고 읽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한자로 되어 있는 정간보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음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간보는 시김새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음의 높이와 율명에 대해 인식을 못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선율선보(정경태, 1996)는 정확한 음계는 알 수가 없지만 가락선을 보며 가락의 움직임과 시김새를 한눈에는 알아볼 수 있어서 정간보 보다 좀 더 쉽게 표현 할 수 있다. 시김새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는 좀 더 편리한 장점이 있다.

오선보(문현, 2004)는 음계를 정확히 시창할 수는 있으나 시김새가 분명하게 그려지지 못하고 몇 박에서 떨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시김새의 표현방식 또한 표기하기 어렵고, 오히려 복잡하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6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시조창 악보는 8종 모두 평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장단은 경제 시조 장단형인 '5 · 8 · 8 · 5 · 8', 가락은 선율선을 사용하여 경제 또는 향제의 초장 선율을 제시하고 있다. 평시조는 초장 제 2각 8박의 첫 번째 박부터 3박까지 '중려'음이 지속되는데 경제의 경우에는 대개 3번째 박 끝에 '황중' 시김새 음이 출현한다(문현, 2004, p 177). 이처럼 평시조의 초장 선율은 향제와 경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를 부르는 김월하, 이양교 등은 8박의 3번째에서 4번째 박으로 넘어갈 때 '황중'으로 급히 떨어트렸다가 '중려'로 올려 부른다(배희민, 2019, p. 118, 악보 2). 같은 부분을 향제에서는 '황중'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그냥 '중려'로 쭉 연결해서 부른다(배희민, 2019, pp. 19~29 악보). <천재(김애경)>과 <비상>은 경제 선율, <금성>·<동아>·<미래>·<와이비엠>·<지학사>는 향제 선율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기보 방법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시조창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가창활동은 선율선보가 가장 적절하고, 가창을 익숙하게 한 후에 기악활동으로 연결한다면 정간보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오선보는 서양음악적인 정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 악보를 제한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가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율선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Ⅲ. 시조창의 단계별 지도 방안 연구

시조창 지도 방안은 단계별로 심화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악곡이해’, ‘영역별 활동’, ‘내면화’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악곡이해의 단계’는 음악적 배경 이해, 선율표현, 복식호흡을 주제로, 도입에 해당된다. ‘영역별 활동 단계’는 전개에 해당하며 가창과 장단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내면화 단계’는 창작적인 요소를 통해 생활화가 주제로 정리에 해당된다.

아래 <표 2> 시조창 지도방안 구조도를 보면 ‘악곡이해의 단계’는 ‘도입’, ‘영역별 활동 단계’는 ‘전개’, ‘내면화 단계’는 ‘정리’와 맞닿아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하나의 학습주제를 선택해서 재구성하면 3차시의 소단위 수업으로 가능하겠다.

따라서 제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는 9차시 학습주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음악 교과 과정중 시조창 단원에서는 성취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의 학습 주제를 선택해서 2~3차시로 재구성 한다.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6학년 시조창 단원은 2~3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9차시 활동에서 주제에 맞게 2~3차시 지도방안으로 재구성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시조창 지도방안 구조도

학습단계	학습 주제 (차시)	주요 학습 활동
악곡 이해 단계	도입	선비문화 체험하고 이해하기(1/3)
		시조창 감상하며 선율 표현하기(2/3)
		시조창 부르기에 알맞은 복식 호흡 하기(3/3)
영역별 활동 단계	전개	5박 8박 장단 익히기(1/3)
		시조창 빠르게 부르기(2/3)

학습단계		학습 주제 (차시)	주요 학습 활동
내면 화 단계	정리	자신의 최대 호흡으로 시조창 부르기 (3/3)	• 느리게 시조창 부르기 • 전성, 요성 찾아 표현하기 • 시김새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시조창 악보 만들기(1/3)	• 악보에 장단과 선율 그리기 • 나만의 시김새 만들기 • 시김새 악보 완성하기
		시조(시) 만들어 노래 부르기(2/3)	• 나만의 시조(시) 만들기 • 나만의 시조로 악보 완성하기 • 완성된 시조로 노래 부르기
		시조창 발표하기(3/3)	• 시조창 음악회 준비하기 • 완성된 시조창 발표하기 • 평가하기

1. 악곡이해 단계

악곡이해 단계에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체험의 단계로 악곡의 특징과 배경을 이해하고 가창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선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산수화와 독서성을 체험하고, 시조창 선율 탐색을 위한 스토리텔링, 신체표현 활동을 하며 학생의 흥미를 통해 학습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1) 선비문화 체험하고 이해하기

악곡이해 단계의 첫 번째 주제는 시조창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선비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반들의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속화와 독서성을 통해서 선비들이 어떤 여가문화를 즐겼는지 살펴보고 체험해 본다.

선비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림들의 예시인 김홍도의 ‘서당’, 정선의 ‘독서여가’, ‘시화상간’, ‘고사관폭’, 이경윤의 ‘월하탄금도’ 등을 보면 서당에서의 풍경과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과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짐작되는 장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은 무엇일까?”, “선비들이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 것 인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양반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 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림 속 선비들과 어울리는 음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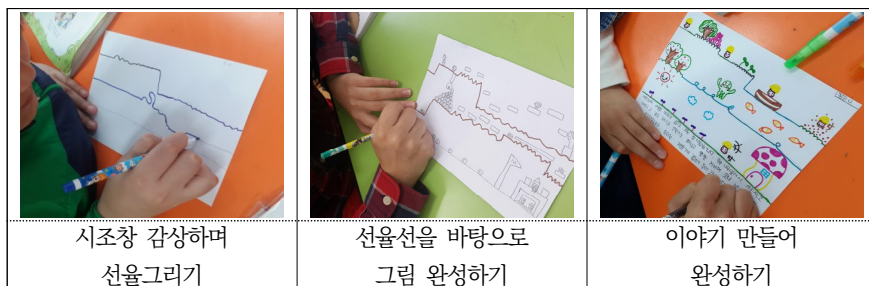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들려줄 여러 장르의 음악 속에는 독서성도 포함 되어 있다.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었다. 이렇게 성독(聲讀)을 하다보면 저절로 머리에 기억되고 몸에 익어 내용과 뜻이 새겨진다(국립민속국악원, 2006). 독서성은 글을 읽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감정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다(김영운, 2012, p 245). 이처럼 독서성은 학습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독서성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으로 적합하므로 그림과 연관시키는 활동을 한 후에 한 구절 불러 보는 활동으로, 독서성 음원은 사자소학(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 10, 2009)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시조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학과 음악이 연관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조창 감상하며 선율 표현하기

악곡이해 단계의 두 번째 주제는 시조창의 선율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율선을 바탕으로 한 그림 그리기 활동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음악과 미술을 연계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심화할 뿐 아니라, 폭 넓은 맥락 안에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용희, 2018, p. 79). 따라서 선율선을 다룸으로써 시조의 선율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감상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창을 감상하면서 선율을 표현하는 활동은[그림 1]과 같이 시조창 ‘태산이’의 초장부분까지 감상하면서 교사가 그에 따른 선율선을 그려서 제시한다. 그 다음 학생들은 선율 선을 가지고 이야기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담아 그림을 완성하고 발표한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배경음악을 들려주어 음악의 분위기가 그림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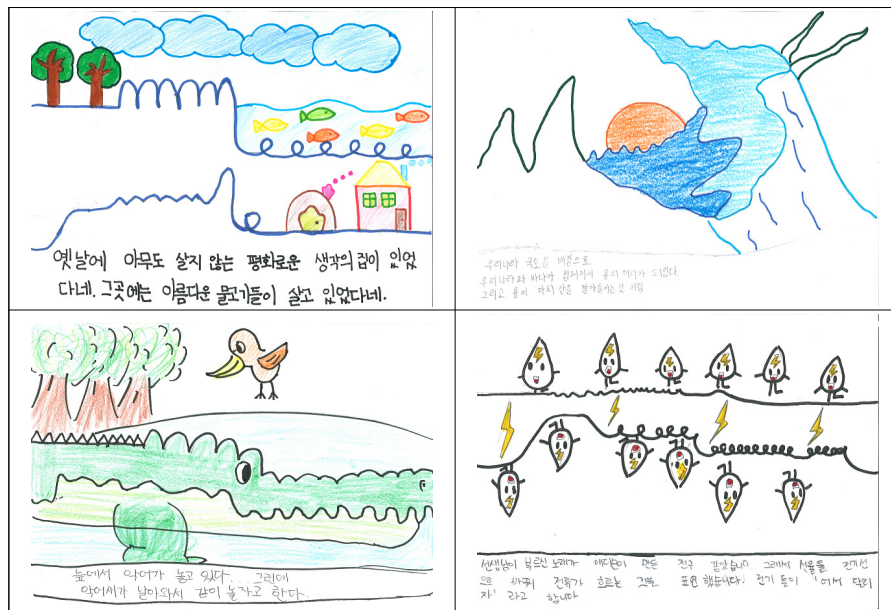


[그림 1] ‘선율그림으로 이야기’ 활동 순서

위의 순서로 진행되는 활동은 시조창 선율의 모양이 자연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연과 닮아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시조 안에 스토리텔링과 같은 의미를 담게 하고 의미 부여를 해줌으로써 선율선이 그대로 선율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연계하는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학생들이 음악을 얼마나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차별성과 주관적인 특징들이 너무 강조되면 음악과 동떨어지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충분한 예시를 통해서 시조라는 음악을 이해하는데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활동으로 완성한 학생들의 선율그림 작품 예시는[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조창을 감상하며 표현한 선율그림

3) 시조창 부르기를 위한 복식호흡하기

악곡이해 단계의 세 번째 주제는 시조창을 부르는데 필요한 호흡방법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놀이를 활용하여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

다. 단순한 복식호흡만을 하는 것보다는 놀이의 형식을 빌려서 즐겁게 복식호흡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놀이를 이용한 복식호흡 방법은 ‘튜브 바람 빼기 놀이’, ‘손가락 3단계 바람 불기’, ‘휴지 바람 불기 게임’, ‘오래오래 소리 내기’등이 있다. 현장의 상황과 수업 시간 또는 학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튜브 바람 빼기 놀이’는 들숨과 날숨에 따라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활동이다. 배의 움직임으로 복식호흡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복식호흡 놀이 활동 전 준비 단계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손가락 3단계 바람 불기’는 손가락 각각 사이에 일정한 바람을 불어 넣는 방법이다. 손등과 입술의 각도에 따라 불어 넣는 바람이 달라짐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복식호흡뿐만 아니라 취구를 이용한 관악기 연주의 준비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휴지 바람 불기 게임’은 일정한 호흡으로 휴지를 불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휴지가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면서 복식호흡 훈련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하는 양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고, 교사도 학생이 올바르게 호흡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래오래 소리내기’는 모둠의 대표 학생이 일정한 소리를 내는 동안 모둠의 친구들이 정해진 미션을 순서대로 수행하고 가장 많은 미션을 성공 시킨 모둠이 이기는 게임이다. 많은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게 되고 모둠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 호흡으로 문장 말하며 이어가기’, 웃음소리 따라 하기’와 같은 활동(박나현, 2013)이 추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이 게임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훈련하는 방법이었다면 이것 이외에 전통적으로 복식호흡을 훈련하거나 호흡을 길게 만드는 방법도 전승되고 있다. 전래동요 가운데에서는 호흡과 관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별 헤는 소리’, ‘별세기’, ‘달하나 쾅쾅 별하나 쾅쾅’(e -국악아카데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별 헤는 소리’는 한 호흡으로 얼마나 많은 별을 따느냐를 가지고 게임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래동요이다. 전래동요를 배우며 호흡도 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복식호흡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는 좀 더 오래 부를 수 있음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부터 긴 호흡으로 노래 부르도록 하지 않도록 짧은 단위에서부터 긴 단위의 호흡으로 진행하여 노래 부르도록 지도한다.

2. 영역별 활동 단계

영역별 활동 단계에서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음악적 특징을 다양하게 체험한다. 장단의 구조 원리를 이용하여 말장단을 만들고 시조창의 장단을 익히며, 시조창을 빠르게 불러본다. 빠른 음악과 느린 음악에 따른 음악적 특징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한배의 특징과 선율을 이해하고, 장단을 치며 시조창을 부를 수 있는 목표를 구체화한다.

1) 5박·8박 장단 익히기

영역별 활동 단계의 첫 번째 주제는 시조창 장단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박·8박 장단을 말장단으로 만들어 장단 치기 활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말장단을 활용하여 장단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장단의 구조를 익힐 수 있고 5박의 둘째 박과 8박의 둘째 박, 다섯 번째 박을 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조의 5박 장단은 3박과 2박의 혼합박자이고, 8박 장단은 3박·2박·3박의 혼합박자이다. 시조의 혼합 장단의 구조로 보았을 때 5박 장단에서는 3글자 단어 2글자 단어, 8박 장단에서는 3글자 단어 2글자 단어 3자 단어가 적합하다. 말장단은 [악보 2]와 같이 5박 장단에서는 ‘달콤한’과 ‘수박’으로 3+2 단어로, 8박 장단은 ‘새콤한’, ‘딸기’, ‘맛있어’로 3+2+3 단어의 조합으로 만든다.

(장단구조) 3 2

5박장단	㉠	㉡		○	
말장단	달	콤	한	수	박
박	1	2	3	4	5

(적용구조) 3 글자 2 글자

(장단구조) 3 2 3

8박장단	㉠	㉡		○	㉢	○		○
말장단	새	콤	한	딸	기	맛	있	어
박	1	2	3	4	5	6	7	8

(적용구조) 3 글자 2 글자 3 글자

[악보 2] 시조창 장단구조와 말장단 만들기 예시

2) 시조창 빠르게 부르기

영역별 활동 단계의 두 번째 주제는 시조창을 빠르게 부르기이다. 노래는 느리게 부르는 것 보다 빠르게 부를 때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다. 악곡의 빠르기를 변화 시켜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조창을 빠르게 부른 후에 느리게 부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조창의 장단은 5박과 8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요 장단 중에 노랫가락 장단은 시조창과 구조가 같은 장단이다(장사훈, 1986, p. 78). 노랫가락장단은 서울 지방의 무가에서 사용된 장단의 하나이다(송방송, 2012). 아래의[악보 3]에서 보듯이 노랫가락 장단은 시조 장단처럼 한 장단이 5박 장단과 8박 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시조 장단	5박장단	⊙			○			
	8박장단	⊙			○		○	
노랫 가락 장단	5박장단	⊙			○			
	8박장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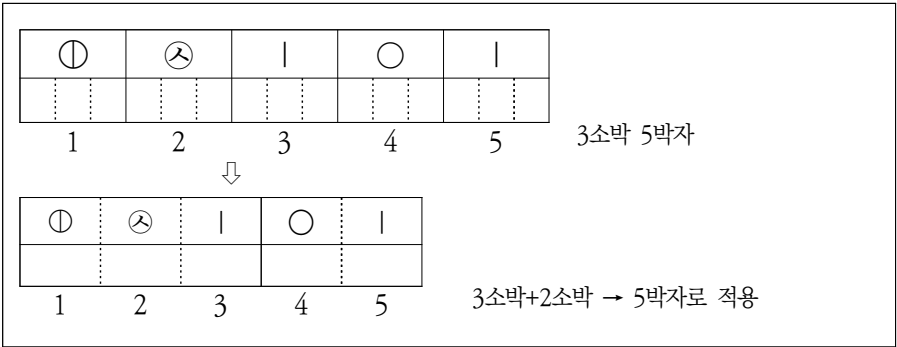
[악보 3] 시조 장단과 노랫가락 장단

시조창의 5박 장단은 3소박과 2소박(5=3+2)으로, 8박 장단은 3소박과 2소박 3소박(8=3+2+3)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시조와 경기민요 노랫가락은 2소박과 3소박의 불균등 박자가 보여서 한 장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장단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다(최상화, 2007, p 304). 5박과 8박 장단을 비교한 위[악보 3]을 보면 시조창의 장단이 노랫가락의 장단의 구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조창을 빠르게 부르는 방법으로 시조 장단과 같은 노랫가락 장단을 이용하여 아래 [악보 4]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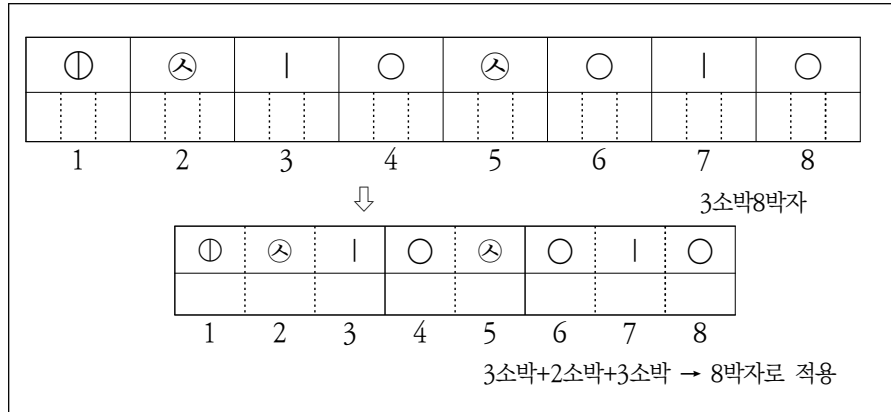
5 박 장단	시조창	
	노랫가락 적용 장단	
8 박 장단	시조창	
	노랫가락 적용 장단	

[악보 4] 시조창 장단을 적용한 노랫가락 장단

위와 같은 원리로 노랫가락 장단에 시조의 노랫말을 얹어서 노래 부르는 방법을 적용 해보면 3소박 5박 한 장단인 시조창의 5박 장단을 3박+2박=5박으로 부르고, 3소박 8박 한 장단인 시조창의 8박 장단을 3+2+3=8박 장단으로 노래 부른다. 시조창의 장단을 노랫가락 장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단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악보 5] 5박 장단의 적용 모양(위: 시조창 장단, 아래: 적용 장단)



[악보 6] 8박 장단의 적용 모양 (위: 시조창 장단, 아래: 적용 장단)

위의[악보 5], [악보 6]과 같이 시조창을 노랫가락 장단에 적용해서 노래를 부르면 빠르기가 달라진다. 시조창 노랫말을 노랫가락 장단에 얹어 부르기 위해서는 빠르기 변화에 따른 말붙임새의 모양에 주의해야 한다.

속도가 느릴수록 처음 시작하는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데, 이와 같은 어단성장(語短聲長)은 단어가 붙어있어야 가사 전달이 쉽기 때문에 단어는 붙이고 그 다음의 소리는 길게 낸다. 실제 평시조를 부를 때 첫 단어는 ‘동창-’이나 ‘청산-’과 같이 붙여 노래하고 이후는 길게 뻗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김혜정, 2013). 이처럼 느린 시조창의 노랫말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작하는 단어는 붙이고 그다음의 소리는 길게 낸다.

빠른 노랫가락을 느리게 불렀을 때는 그림과 같이 첫 말붙임새가 붙여져서 ‘충신-’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 시조창을 빠르게 부르면 붙어있는 모양의 말붙임새는 자리가 바뀌어 리듬감이 더해진다. 하지만 가사의 특징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한다.

시조시를 빠르게 부르고 있는 노랫가락이, 시조를 빠르게 부르는 형태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조창을 노랫가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부르되 창부터 령의 노랫가락 선율이 아니라 시조시의 선율을 노랫가락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부르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조창과 노랫가락 장단의 구조와 빠르기에 따른 말붙임새를 바탕으로 노랫가락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부르는 오선 악보는[악보 7]과 같다.

시조창(태산이)

편곡 이정민

<초장>

태 산 이 - 높 다 - 하 되 -
하 늘 - 아 래 - 되 이 - 로 - 다 -
<중장>
오 르 - 고 - 또 - 오 - 르 - 면
못 오 - 를 - 리 - 없 긴 - 마 -
<중장>
느 - 은 - 사 람 - 이 -
제 아 - 니 - 오 르 고 되 만 - 높 다

[악보 7] 빠르게 부르는 시조창

3) 자신의 최대 호흡으로 시조창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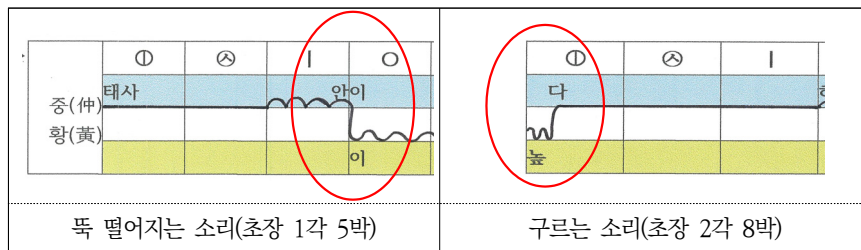
영역별 활동 단계의 세 번째 주제는 자신이 가능한 호흡과 표현으로 시김새를 살려 시조창을 부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느린 음악이 가진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시조창 시김새의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시김새들을 찾아 표현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1) 시김새 연습하기 (떠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구르는 소리)

시조창을 부를 때는 '떠는 소리, 푹 떨어지는 소리, 구르는 소리, 밀어 올리는 소리, 돌려서 내는 소리, '속청으로 올리는 소리' 등의 다양한 요성과 시김새가 사용된다. 각각의 시김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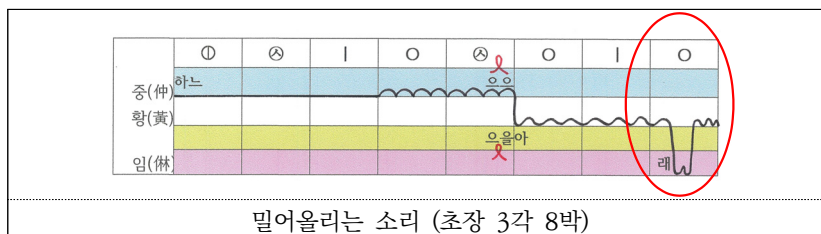
‘떠는 소리’는 3박부터 오르내리며 흔들리는 음이다. 연습을 할 때는 선으로 그리며 소리 내도록 한다. 처음부터 빠르게 선을 그리며 소리를 내거나 선을 그리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경우에 규칙성이나 크기가 일괄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시김새 그리기와 소리의 속도를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빠르게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뚝 떨어지는 소리’는[악보 8]과 같이 ‘중’에서 ‘황’으로 뚝 떨어뜨려 내는 소리로 배가 잠깐 볼록 나오도록 배에 힘을 주고 후두를 막았다가 요성을 한다. 요성 소리내기 연습을 한 후에 연결해서 부르면 초장 5박을 부를 수 있게 된다. ‘구르는 소리’는 주로 첫 박이나, ‘황’으로 끝난 노래를 ‘중’으로 올리면서 시작할 때 사용한다.[악보 9]에 서처럼 한 정간의 1/3을 굽게 떨어뜨렸다가 ‘중’으로 올린 후에 소리를 뿜어 낸다.



[악보 8] 시김새 선율구조 예시

‘밀어 올리는 소리’는 초장과 중장 마지막 사설 전에 사용하는데,[악보 9]와 같이 한 정간안에서 ‘중’을 두세 번 굽게 떨어주고 소리를 끌어올려 ‘황’을 두 세번 굽게 떨어주며 표현한다. ‘속청으로 올리는 소리’는 아래[악보 10]선율구조 예시에서처럼 ‘임(林)’을 떨어져 소리 내다가 ‘청황(淸黃)’을 가성으로 소리 내는 방법으로 ‘속소리로 올리는 소리’ 끝에 ‘굴려서 내는 소리’를 붙여서 표현한다.



[악보 9] 시김새 선율구조 예시

른 장단을 표기하여 악보로 완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자신이 부른 노래를 악보로 기보하는 활동을 통해 음악적 이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김새란 ‘곰삭다’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말로 노래를 오랜 기간 부르다보면 자연스럽게 맺 있는 표현들을 하게 된다(김혜정, 2013, p 47). 이렇듯 자신의 시김새를 소리를 스스로 자기화해서 나온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선율을 악보로 기보할 때는 음악을 객관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율의 골격과 장단은 제시된 악보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적인 선율과 시김새의 모양, 장단 부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진행할 것이다.

2) 시조 만들어 노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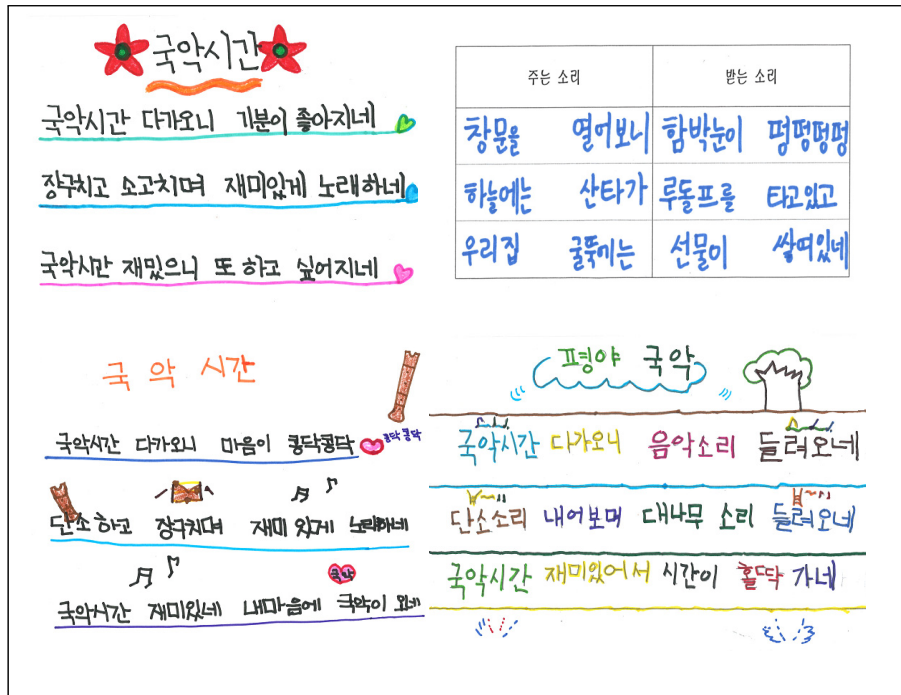
내면화의 단계의 두 번째 주제는 나만의 시조를 만들어 시조창 선율에 얹어 부르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작품을 갖고 있다는 만족감은 국악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느끼게 한다(권덕원, 2013, p 254).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활동을 통해 시조창의 음악철학과 악곡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조창이 과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음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는 3장 6구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시조 창작을 할 때 초장, 중장, 종장을 한 번에 완성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지도하도록 한다. 시조 형식에 맞춰 의미전달을 할 수 있도록 창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과서에 제시된 시조들을 4음보에 맞게 끊어 읽으면서 시조의 운율과 형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시조가 완성되면 시조의 종장 1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며 제 2음보는 5음절 이상인 것을 설명해 주고, 학생들 작품에서는 창작활동에 의미를 둔다.

시조를 읽으면서 시조의 형식과 운율을 습득했다면 다음 활동으로 ‘주고 받는 소리’를 만든다. 제시된 ‘주는 소리’에 어울리는 ‘받는 소리’를 만들어보며 시조창작의 기초를 다진다. 학생들의 숙달 정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기본 틀을 제시해 주고 빈칸을 채워 넣는 방법, 함께 읽었던 시조를 이용해서 뜻을 풀이 하는 방법, 학생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제시하여 ‘받는 소리’부분을 창작하는 방법이 있다.

모둠활동이나 개인 활동으로 한 문장씩 창작해 보면서 시조 창작을 위한 연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각자 맡은 부분을 완성한 후에 운율에 맞게 함께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확인하고 흐름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읽어질 경우 글자 수를 수정하도록 한다. 이상의 활동을 통해 시조의 형식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나만의 시조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학생들이 만든 시조 결과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생들이 만든 시조 결과물

3) 시조창 발표하기

내면화의 단계의 세 번째 주제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시조창을 발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자아완성의 성취감을 갖게 한다(권덕원 2012). 이를 위해 시조창 음악회를 모둠별로 계획하여 발표하고, 자기 평가와 모둠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발표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평가지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시조창 음악발표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발표회를 계획하는 모둠활동을 한다. 연주회에 적합한 연주곡을 선정하고 발표 형태를 결정하며 모둠원 끼리 발표회 진행에 어울리게 발표순서도 정하고 연습을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다. 활동지를 통해 발표

형태와 순서를 계획했다면 그다음엔 모듬별 발표를 통해 적합한 전체 순서를 정하고 시조창 음악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의 모든 과정은 영상에 담고 시조창 발표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평가 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평가는 활동 과정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 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 모듬평가를 실시하며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평가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초등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시조창을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조창의 음악적 특성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과 창작적 요소를 찾아 단계별로 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3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는 각각 세 개의 학습 주제로 만들었고, 단계별 주요 활동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이해 단계는 시조창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체험의 단계로 ‘선비문화 체험하고 이해하기’, ‘시조창 감상하며 선율 그리기’, ‘시조창 부르기에 알맞은 복식 호흡하기’를 한다. 여러 가지 풍속화와 독서성 소재들을 통하여 평시조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돕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선율선 그리기 활동으로 시조창의 선율을 표현하고 구체화 시키며, 자연스러운 복식호흡 훈련을 위해 다양한 놀이 방법을 제시하여 가창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둘째 영역별활동 단계의 학습 주제는 ‘5박 · 8박 장단을 익히기’, ‘시조창 빠르게 부르기’, ‘자신의 최대 호흡으로 시조창 부르기’ 이다. 시조창의 5박 · 8박 장단 익히기 활동에서는 말장단을 활용하여 5박 · 8박 장단 구조를 이해하고 시조창 장단을 익힌다. 말장단은 시조창의 3 · 2, 3 · 2 · 3 장단 구조에 어울리는 단어 음절을 사용하여 만든다. 시조창 빠르게 부르기 활동은 느린 시조창의 인식을 바꾸고 음악의 한배의 변화와 선율의 특징을 알기 위해 진행하였다. 노랫가락 장단은 시조창과 같은 구조로, 장단의 원리를 바탕으로 강세와 말붙임새를 적용하여 시조창을 빠르게 부른다. 시조창을 빠르게 부른 후에 자신이 가진 최대 호흡으로 시조창을 부르면서 느린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며 시김새를 연결해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해 본다.

셋째 내면화 단계에서는 ‘시조창 악보 만들기’, ‘시조 만들어 노래 부르기’, ‘시조창 발표하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시조창 선율과 장단의 모양을 구체화하여 기보하는 활동을 통해 음악적 이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시조창의 음악철학과 악곡의 원리를 이해하며, 발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보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게 되는 것은 시조창의 음악철학과 악곡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조창이 과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신의 음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흥미로운 시조창 활동 속에서 의미 있는 음악의 요소를 찾아 시조창이 재미없는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9).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저자.
-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저자.
- 국립국악원 (2009). 생활 속에 우리 국악. 8번. 사자소학. 계성원.
- 국립민속국악원 (2006). **옛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음악**. 저자.
- 김영운 (2003). 가곡과 시조의 음악사적 전개. **한국음악사학보**, 31, 139~168.
- (2012). 한문 독서성의 음악 양식과 문화적 가치. **우리 춤 연구소**, 19, 242-276.
- (2015). **국악개론**. 경기: 음악세계.
- 김용희 (2018). 음악·미술 연계 초등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47(1), 61~86.
- 김혜정 (2013). **초등국악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습**. 서울: 민속원.
- (2013). 민요의 장단별 말 붙임새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민요학회**, 37, 39-67.
- 김월하 (2005). 선가 김월하 정가 제1집. 신나라 레코드.
-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 (2012). **국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문 현 (2004). **명인이 전하는 평시조·사설시조**. 서울: 민속원.
- (2004). 평시조의 창제별 음악적 특징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나현 (2013). 놀이를 활용한 초등학생 합창 지도안 개발 및 효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 배희민 (2019). 지방제별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 연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한범 (2010). **한국전통음악논집**. 서울: 민속원.
- 이양교 (2006). 사설시조·평시조·지름시조. 서울: 신나라 레코드.
- 이양교, 황규남 (1998). **12가사전·시조창보**. 광명당.
- 장사훈 (1986). **시조 음악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태 (1996). **선율선 시조보**. 서울: 명진문화.
- 최상화 (2007). 서울굿 노랫가락과 시조창, 경기민요 노랫가락의 비교고찰. **한국학연구**, 26, 289-312.
- e -국악아카데미 <http://www.egugak.go.kr>.

ABSTRACT

The Guidance Plan for Teaching Sijochang Stage by Stage by Utilizing Creative Activities

Lee, Jeong-Min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lesson pla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xperience the emotional feature of slow music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to utilize Sijochang in various ways in school music curriculum.

First, through studying Sijochang and analyzing music source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Sijochang were analyzed and found out that Sijochang can be utilized for educational purposes to teach musical elements such as abdominal respiration, the beat structure, and the change of hanbae, and the creation of Sijo. Based on the findings, three learning stages were developed in order to experience in depth through creative activities. Each, thus total of nine classes were developed. However, it can be also reconstructed into three classes.

The first, “understanding stage” in the lesson plan for teaching Sijochang prepares for singing activity and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ackground of the song by using landscape painting and reading to experience scholar culture, and through storytelling to search in order to search melodies. The second, “activity stage” materializes the objective to sing Sijochang by using the principle in beat structure to allow students to make lyric rhythm and to experience musical features. The third, “internalized stage” encourages students to engage in creative activity to put their ideas and emotions into sing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musical philosophy of Sijochang and the principles of songs. And, it allows the students to compar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presentation and evaluate their work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enjoy Sijochang in their everyday life through finding meaningful musical elements in interesting Sijochang activity. And we look forward to the active use of Sijochang in the educational field.

keywords: Pungryu music, Sijochang, traditional music education, creative activity,
systematic teaching method.

투고일: 4월 30일, 심사(수정): 7월 25일(7월 29일), 게재확정일: 8월 6일